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9년 3월

휴먼러니저즘

참가안내

[서양사] 피터 히스토리아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철학] 나라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천 개의 별똥별

★ 가깝고도 먼 내 주변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나다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9년 3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서양사 20만원(10강), 중고등부 철학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5월 마지막 주(26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기간 중 총 2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서양사 초등

피터 히스토리아 : 영웅이 아닌 한 소년의 역사 이야기(10강)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3월 10일~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참고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 1-2권 중 각 강좌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와주세요.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는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한 소년, 피터 히스토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용을 무찌른 기사도, 악마와 맞서 싸운 마법사도 아닙니다. 이 소년이 남들과 다르다면 기나긴 역사를 13살 소년의 모습으로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피터 말고도 피에트로, 페트로스, 피에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역사를 영웅들의 재미난 기차놀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소년과 함께 역사 속을 걷는다면 사람들에게 역사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끝없는 싸움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사리 움튼 희망의 싹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끝난 후, 남겨진 역사의 빈 곳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긴 여행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소년 피터와 쾌활하고 씩씩한 엔키두는 마을의 절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테루의 절친한 친구 엔키두가 엄청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검사, 변호사가 되어 그를 재판해봅시다. 이 재판과 함께 피터의 여행이, 그리고 인간의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2강_ 결코 너처럼은 살지 않겠어 - 그리스의 현인들

아이고, 내 팔자야! 또다시 노예가 되다니... 노예였던 피터가 또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인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던데... 그런 주인보다 내 옆의 노예가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 그런데 주인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이 노예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군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3강_ 유일신의 도성 - 예루살렘, 예루살렘

신께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피터가 예루살렘에 신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유일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서양사의 뿌리를 이루는 기독교에 얽힌 역사를 살펴봅니다. 각자 왕이 되어, 성직자가 되어, 귀족과 평민, 노예가 되어 자신의 속을 감춘 기막힌 토론을 벌여봅시다!

4강_ 하얀 사람 - 무례한 총잡이들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까만 사람들의 땅이 나온다네~♫ 유럽이 자꾸자꾸 땅 부자가 되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유럽을 여행해 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대항해시대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뿐일까요? 하얀 사람들의 영광 뒤에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었다면요? 4번째 시간은 위대한 역사 뒷면의 아픈 그림자를 따라가 보는 여행입니다.

5강_ 지구와 태양의 간단한 비밀 - 유명한 종교재판 이야기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모두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시절, 진짜로 도는 것은 '지구'라고 주장한 위험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훌륭한 과학자로 존경을 받는 갈릴레이에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6강_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 혁명의 도시, 파리

“배가 고프다고 했느냐? 그럼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어디서 행패냐?” 굶주린 민중들 앞에서 뻔뻔하게 외치던 왕과 귀족들에게 휘둘러진 철퇴! 피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놓인 루이 16세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피로 이뤄진 혁명은 옳지 않거나 뭐라나?

7강_ 쉬지 않는 방적기 :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더 많이 쓰고 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모든 부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법!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이면에는 빈곤과 착취라는 그늘이 있었으니... 19세기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은 인류의 풍요를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8강_ 산사람들이 남긴 약속 : 그들은 바로 '나'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사인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삼았던 세계대전은 바로 20세기에 두 차례나 벌어졌죠. 인류의 역사는 진정 피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9강_ 내 이름은 메어리 허스토리아 : 세상 사람 절반의 외침

역사 속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건 혹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남성들만의 역사에 과감히 판지를 거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역사(history)에는 담기지 않았던 또 다른 역사(herstory)를 만나봅시다.

10강_ 안녕, 피터 : 끝나지 않을 여행의 시작

지난 수업들 동안 피터는 어디에 있었나요. 여전히 만화책 속이었나요? 자신이 머물고자 했던 곳은 네모난 만화 칸 속도, 오래된 옛날이야기 속도 아니라고 말해 온 피터. 피터가 오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은 뭐니?”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철학 중고등

나라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천 개의 별뿔별(10강)

★ 가깝고도 먼 내 주변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나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중등일요강좌> 3월 10일~5월 26일 오후 1시 <고등일요강좌> 3월 10일~5월 26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인문학은 세계관을 다듬어가는 공부라고,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청소년인 당신은 이미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세계관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이든 앞으로 만들어질 세계관이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 특히 당신과 자주 접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세계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모르거나 지레짐작하거나 크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시간 대부분이 형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친근한 느낌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을 다듬어가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 공부의 목적이 있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늘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었던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드러내어 상처받는 일들이 흔하디흔한 시절입니다. 타인들의 세계관을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강좌를 통해 조금 더 현명한 이해와 공감의 우주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1강_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흔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참 곤란하네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떤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공감하고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요.

2강_ “내가 왜 화났는지도 몰라?” : 연애 관계의 수수께끼

누구나 한 번쯤은 드라마 같은 달콤한 연애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 속 연애는 그 설렘만큼이나 서로에게 실망하고 불안해하며 충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연애 관계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강_ “내가 자식 낳으면 엄마처럼은 안 할 거야.” : 기성세대의 교육관을 비판하다

어른들은 말 잘 듣는 청소년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바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것마저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항의할라치면 이렇게 받아치곤 하죠. “세상은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더 참지 말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밖에서 교육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세상엔 어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4강_ “넌 애가 왜 그 모양이야?” : 가장 도덕적인 인간을 찾아서

어른이 청소년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매우 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만약 도덕이란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면,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도덕적인 것은 대해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인간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5강_ “이게 나라냐!” :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사람들은 정치하면 보통 선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일 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빛깔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가요. 여기 여러분의 정치관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6강_ “넌 어떤 노래 들어?” : 대중음악의 상업성은 정말 문제일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대중음악이 지나치게 상업적이어서 아이돌 가수가 기획사에 의해 공장의 상품처럼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사람들 역시 그렇게 만들어진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음악에 길들여 스스로 문화적 다양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아이돌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길들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7강_ “너 되게 예뻐졌다~” : 무엇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이나,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살에 쌓인 세월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각자의 생각을 꺼내놓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8강_ “인생은 원래 혼자야.” : 인간은 정말 사회적 동물일까

사람을 사귀기 싫은 건 아니지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무리 지어 끼리끼리 다니면서 왕따나 시키고 다른 사람 뒷담화나 하는 꼴들을 보면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차라리 드라마나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게 훨씬 낫다. ...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어떤 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혼자족을 현대사회의 불안이 반영된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세상, “관계”란 건 포장됐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9강_ “어떻게 살고 싶어?” : 가치관을 경매하다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경제적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선망 말고도 수많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쉽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가치관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가치에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을 위한 가치관 경매를 준비했습니다.

10강_ 나와 너의 세계관이 만났을 때

인간에게는 서로에게 닫혀있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과 다르게 살아가지요.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서로의 세계관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 담겨 있는 서로의 아픔과 꿈을 함께 나누다 보면, 낯설기만 하던 타인이 친구가 되어 서로를 보듬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3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